

1910년대 일본 여성소설의 섹슈얼리티

— 『靑鞆』소설을 중심으로 —

이 지 숙*

目 次

1. 서 론
 2. 『靑鞆』以前 일본여성문학 섹슈얼리티 양상
 3. 1910년대 『靑鞆』소설의 섹슈얼리티
 - 3-1. 여성들의 ‘억압된 성’ 의식
 - 3-2. 여성들의 ‘해방된 성’ 의식
 - 3-3. 여성들의 레즈비어니즘 (lesbianism)
 4. 결 론
-

1. 서 론

성(性)은 사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혐해하기도 하지만, 근대적 주체가 지닌 자아로 설명될 수 있다. 성은 사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져 왔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재양식을 설명하는 범주이자 주제였다.

이러한 성은 최근 들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 male/female),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경험에 의해 구축되는 사회, 문화적인 성차를 의미하는 젠더(gender: masculinity/femininity), 그리고 프로이트(Freud Sigmund)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성, 즉 인간의 성생활과 연관되는 행위, 선호양식, 사회적 규범, 심리적 구조 등을 총괄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로 정의되고 있다.¹⁾

페미니즘 비평이 언급되기 전까지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는 무시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무성욕asexuality과 열정 없음passionlessness로 정의되어 왔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결혼과 가족에 제한되었으며 성적 쾌락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시하여 왔다.²⁾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Freud Sigmund)나 라캉(Lacan Jacques)에 의해 결핍으로 간주되어진 女性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중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성적 특질³⁾을, 뤼스 이

* 충남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김형주,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페러다임 모색」 『중앙영어영문학』 제 4호, 1999년, p.174.

2) 주유신, 「치녀들의 식사 : 여성의 성,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년, p.214.

3) 식수는 남근중심주의라는 상징체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성적특질을 바탕

리가라이(Luce Irigaray)는 촉각(touch)을 주목하며 여성의 육체의 복합성(multiplicity)을 주장한다.⁴⁾ 즉, 언어가 신체나 성적 욕망과 밀접하게 관계되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페미니즘의 중요한 문제제기 중의 하나는, 부권제의 여성지배형태로서 형성된 남성중심적 性神話의 해체이다. 이로부터의 일탈을 위해서는 이리가라이가 제시한 여성의 성적 자립 문제와 자유로운 여성쾌락의 복권이 전제가 된다.

일본 근대 여성문학의 경우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이미 20세기 후반 『靑鞆』페미니즘에서 시작되었다. 1911년 『女流文芸誌』로 창간된 『靑鞆』은 후반기에 이르러 「貞操」, 「落胎」, 「廢娼(賣春婦)」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슈화한다.⁶⁾ 여성 스스로가 성(性)을 언급한다는 것이 터부시되었던 당시 『靑鞆』은 姦通, 性慾, 同性愛까지도 테마로 다루었기에 일본 국가 규범의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종종 발매금지처분을 받았다.⁷⁾

1910년대 『靑鞆』소설과 그 주변 작가의 작품 속에는 이리가라이가 말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복합성과 다양성이 나타나 있다. 이 글은 19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다양한 성적 욕망,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실천 등⁸⁾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2. 『靑鞆』以前 일본여성문학 섹슈얼리티 양상

富國強兵과 賢母良妻를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정책화한 明治국가에서, 여성의 '성'은 억압·봉쇄된 존재였다. 호주에게 절대적 권한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무능력을 제도로 규정한 明治民法에 의하면, 남편과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 아내 측에서 별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혼사유에 대

으로 한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성성의 제 1차적 성적특질은 산포이다. 즉, 여성의 성감대는 남성과는 달리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중심과 주변이 따로 없다.

이봉지, 「엘렌식수와 여성적글쓰기」, 『세계의 문학』 1999 겨울 p.252.

4) 식수나 이리가라이의 글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성욕은 단 하나의 기관만을 강조하는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물처럼 흐르며 풍요하고 다양한 성질을 지닌다. 식수와 마찬가지로 이리가라이는 남성의 생식기관이 암시하는 단일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이 암시하는 복합성을 대조하였다. 특히, 이리가라이는 여성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입술들, 즉 “두개의 입술”에서 여성적 목소리를 찾아내었다. 왜냐하면 두 입술은 여성의 복수적이고 산만한(비-펠러스적) 섹슈얼리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로즈마리 톱,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2000 년 p.391.

5) 大越愛子, 『フェミニズム入門』, ちくま新書 1996 年, p.176.

6) 「貞操論爭」의 계기를 만든 것은 이쿠타 하나요(生田花世)의 「먹는 것과 정절(食べることと貞操と)」(1914.9)였다. 그녀는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도피한 치하라 요시(千原代志)에 자극 받아, 스스로의 체험을 써서 여자노동자를 둘러싼 사회경험을 고발했다. 「落胎論爭」은 하라다 사츠키(原田(安田)臯月)의 소설 「옥중의 여자가 남자에게(獄中の女より男へ)」(1915.6)로 시작된다. 형법 낙태죄에 의한 국가의 생식 컨트롤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대담한 문제제기였다. 「廢娼論爭」은 이토 노에(伊藤野枝)의 「오만협량하며 호지부지한 일본부인의 공공사업에 대해(傲慢狹量にして不徹底なる日本婦人の公共事業に就いて)」(1915.11)로 시작되었다. 중상류 부인 단체의 자신사업의 기만성을 공격한 노에의 글이, 매춘 긍정으로 받아들여져 아오야마 기쿠에(青山菊榮)의 비판을 사게되었다.

らいてう研究會編, 『靑鞆』人物事典』, 大修館書店 2001 年, p.223.

7) 『靑鞆』는 창간부터 1916년 2월 무기휴간이 되기까지 약 4년 반 사이에, 3회의 발매금지처분을 받았다. 1회는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의 「편지(手紙)」(1912.4)로 유부녀의 간통을 테마로, 2회는 후쿠다 히데코(福田英子)의 「부인문제의 해결(婦人問題の解決)」(1913.2)은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부인문제를, 3회는 하라다 사츠키(原田(安田)臯月)의 「옥중의 여자가 남자에게(獄中の女より男へ)」(1915.6)의 낙태죄에 관한 것이었다.

らいてう研究會編, 『靑鞆』人物事典』, 앞의 책, p.4 참조.

8) 한국성폭력상담소편,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년, p.24.

해서도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 이혼 당하는데 비해서, 남편은 간음죄로 인해 형이 처해졌을 때에 한하여 아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남성은 매춘 및 첩을 두는 것이 공인되며, 형법의 낙태죄는 중절을 인정하지 않았다.⁹⁾

또한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는 「처녀의 순결을 논함(處女の純潔を論ず)」(1893)에서 숭고한 戀愛는 「無染無汚の純潔」를 기원으로 하며, 순결이 없는 연애는 <肉愛>에 불가하다고 언급한다. 여성의 가치를 단순히 성적 순결성에 두고 있다. 처녀의 순결 중시와 결혼 후 정조를 강요하는 가치관은 賢母良妻의 교육에 의한다. 여성이 성을 의식하는 것조차 음란하다는 도덕이 강화되었다. 법적으로 공인된 남성의 성적 방종과는 달리 여성의 성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참조해 볼 때, 근대 초기 일본 여성문학가의 선구적인 존재인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이치요는 제도에 봉쇄당한 여성을 그렸다. 봉건적인 사회 구속의 중압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극을 한 몸에 겪어낸 희생자의 모습을 비추어낸 것이다. 이치요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인해 미혼일 때나 기혼일 때나,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이에(家)에 밀폐되어져 있는 상황을 고발한다. 그녀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었지만, 근대적 자아의 문제를 맨 처음 받아들임으로서 일본 근대 여명기 신여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치요의 대표작 「十三夜」(1895), 「키재기(たけくらべ)」(1896)는 오래된 인습에 속박 당해 살아야만 하는 근대 여성의 고뇌를 조명하고 있다.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이 홀로 살아가려 할 때 여성의 운명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작품 속 여주인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녀들은 가난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을 팔든지, 굴욕적인 처사에 견디는 결혼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十三夜」에서 고급관리의 아내가 된 오세키(お關)는 장남이 태어나자 남편 하라다(原田)에게 학대를 당한다. 오세키는 고심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에 돌아가지만, 旧倫理에 젖은 친정부모의 반대로 <귀신같은 남편> 곁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귀가 길에서 만난 인력거 마부는 어릴 적 옛 친구였다. 그는 오세키가 결혼해버리자 방탕의 길을 걸던 끝에 마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회상에 젖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치요 작품에 나타난 여성은 박정한 남자로 인해 냉혹한 운명을 걷는 여성이 그려져, 그에 대해 자유를 구해 반항도 못한 채 세상을 저주하는 절망적인 단념이 주된 내용이었다.¹⁰⁾

이에 반해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온 후기 두 소설에서는, 여성의 무서운 각오와 새로운 비약의 의지가 엿보인다. 유부녀의 간통을 그린 「연보라(裏紫)」(1896)와 이혼을 소재로 한 「와레카라(われから)」(1896)의 두 후기 소설은 여성해방의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치요 작품과는 달리 「연보라」의 오리츠(お律)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무척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아내이다. <부처님 성품>을 지닌 남편은 오리츠를 귀여워해 주며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오리츠는 결혼 전 사귀어온 애인에 대한 미련으로 고민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애인과의 사랑을 이루려하는 오리츠의 결의는 가부장제도의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여성의 <姦通>을 문제시하고 있다. 오리츠에게는 가정이라는 틀도 남편이라는 지배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제도에 밀폐된 家(이에)로부터 자아의 충족을 추구해, 목숨을 건 용기로 집을 뛰쳐나와서 사랑하는 애인과의 만남을 거듭하고 있다. 자아를 자각한 한 여성을 통해 새로운 아내의 윤리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여자의 사랑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¹¹⁾ 또한 최후작품 「와레카라」는 남편의 냉혹한 처사에 간통으로 기울어지는 아내를 그리고

9) 米田佐子, 『平塚らいてう 近代日本のデモクラシーとジェンダー』, 吉川弘文館, 2002年, p.85참조.

10) 福地重孝, 『近代日本女性史』, 雪華社, 1963年, p.49.

11) 福田清人編, 『樋口一葉 人と作品』, 清水書院 1965年, p.196.

있다. 이와 같은 여성상의 배후에는 <체제>와 <권위>로 상징되는 夫權에 대항하는 여성의 강인한 의지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치요 사후 곧 등장한 가인(歌人) 아키코는 이치요의 자아각성보다 진일보하고 있었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드높이 性愛讚歌를 고가한다.

부드러운 피부, 뜨거운 피를 느껴보지 않고도 외롭지 않나요? 도리를 설파하는 그대 - 세상의 도학 자들이여. 여자의 열정에 스치는 것조차 거부하는 당신들의 생활, 감정을 억누르는 생활이 외롭지 않나요?

어지럽고 방황하는 마음 심하여, 연인에게 젓가슴 가리지 못하네 사랑에 몸을 태우는 지금의 나는 마음도 어지러워 방황한 나머지 연인에게 젓가슴을 가리는 소녀의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릴 정도이다.

젓가슴을 가리고 신비의 휘장을 밖으로 차내. 여기에 붉은 꽃의 진함이며 - 성(性)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던 내가 비밀스러운 성의 기쁨을 알았네. 그것은 마치 붉은 꽃과 같이 강렬한 것이었다.

やは肌のあつき血汐にふれて見てさびしからずや道を説く君
みだれごちちまどひごち類なる百合ふむ神に乳(ちち)おほひあへず
乳ぶさおさへ神秘のとばりそとけりぬこなる花の紅ぞ濃き¹²⁾

여성이 연애의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이 시대에, 『흐트러진 머리(みだれ髪)』(1901.8)의 短歌는 여성스스로가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학」의 가능성을 펼친 과감한 시도였다. 봉건적,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사회도덕에 반기를 들고 개성의 자각과 본능의 해방을 드높이 외친 아키코는, 남편 요사노 뱃간(与謝野鐵幹)과의 사랑과 성을 아름답고 대담하게 묘사하였다. 뜨거운 정열의 소유자인 아키코는 처자가 있었던 뱃간과의 연애를 관철하기 위해 사랑의 도피를 행하고 결혼에까지 이른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일본의 20세기의 개막을 여성자신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선언한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短歌는 그 시대에 흔재하는 性言說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여성의 언어를 새롭게 새기는데 성공을 거두었다.¹³⁾ 남성의 관능을 충족시키는 소위 남성의 도구화로 여겨진 여성의 성이, 아키코에 의해 주체적으로 읊어진 『흐트러진 머리카락』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¹⁴⁾ 또한,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연애를 에로스에서 조명한 점은 이후 여성언설의 가능성을 크게 예고한다.

개인의 존엄과 관능의 해방의 추구한 이치요와 아키코의 언설은, 이후 여성의 성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 『靑鞆』으로 이어지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3. 1910년대 『靑鞆』소설의 섹슈얼리티

『靑鞆』의 창간 전년에 일어난 유명한 「大逆事件」을 거쳐 政治的 反動期를 맞이한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특히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은 탄압을 받는다. 이로 인해 1910년 고토쿠 슈스

12) 日本近代文學大系 第17卷, 『与謝野晶子 若山牧水 窪田空穂集』, 角川書店, 1989年, p.51.

13) 여성문학연구 4호, 「에구사미즈코(江種滿子) 身体言說에 나타난 근대화」, 태학사, 2000년, p.157.

14) 渡邊澄子, 『与謝野晶子』, 新典社, 1998年, p.79.

이(幸徳秋水) 등의 무정부주의자는 천황암살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다수 체포되고, 24명이 피고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진다. 정치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는 <겨울의 시대(冬の時代)>를 맞이하게 된다. 『靑鞆』은 이러한 시대상황과는 무연한 형태로 화려하게 발족한다

1909년에서 1910년(明治42-43), 일본문학의 근대를 펼친 自然主義文學運動은 이미 전성기의 최후를 맞이했다. 서구의 自然主義文學이 자연과학의 탄압에 의한 자아 부정임에 반해, 일본의 自然主義文學은 자아를 살리려는 浪漫主義 내용을 自然主義 기법으로 그려낸 것이었다. 또한 이시기는 서구로부터 다양한 근대적 기법이 문학에 수용되어 同人誌 그룹에 의해 문단에 화려하게 등단했다. 「스바루(スバル)」(1909), 「三田文學」(1910), 「新思潮」(1910), 「白樺」(1910)의 창간에 의해, 耽美主義·理想主義 시대가 열리게 된다.¹⁵⁾

『靑鞆』창간 당시, 이미 서구 여성해방운동은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예를 들면, 1908년 万国婦人參政權大會(암스텔담), 여성의 政治団体·集會加入 및 出席認可(독일), 1910년에는 全美勞動婦人·社會主義婦人の 政治的權利要求集會·데모, 万国婦人參政權大會(런던) 등. 이러한 동향을 저널리즘은 민감히 반응해, 『靑鞆』창간에 앞서 「東京朝日新聞」은 「신여성(新しき女)」을 연재(1911.5)했다. 「신여성(新しき女)」연재의 반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靑鞆』출현이 토양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⁶⁾

이와 함께 이 당시 서구 문학사조의 일본유입도 주목하고 싶다.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는 1910년 1월호 「와세다 문학(早稻田文學)」에 입센(Ibsen Henrik)의 「인형의 집(人形の家)」¹⁷⁾의 全譯을 게재했다. 1911년 입센의 「인형의 집」의 노래역을 연기한 마츠이 스마코(松井須摩子)가 인기를 얻었다. 『靑鞆』이 婦人問題에 관심을 지닌 것도 婦人解放과 女權擴張을 구가한 입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여성의 근대적 자아가 싹트고, 여성들은 賢母良妻主義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가부장 체제 하에서 봉쇄되었던 여성의 자아, 사랑과 성의 자유의 해방은 『靑鞆』의 발간과 때를 같이 한다. 즉, 여성의 '억압 당한 성의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 『靑鞆』이었다. 특히 엘렌케이(Ellen key)¹⁸⁾는 『靑鞆』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진정한 남녀의 관계는 단순한 성적결합이 아닌 靈과 官能이 일치된 연애라는 새로운 사상이 당시 인텔리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금욕과 성에 대한 무지가 양가집 자녀의 조건이던 시대에 『靑鞆』의 여성들은 소설의 형식으로 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 비교적 자유롭게 그들의 현실과 비애를 토로해 사랑과 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여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남자를 가해자로 이분화 한다.¹⁹⁾ 따라서 『靑鞆』소설은 아직 문학적 방법론적 의식이 성숙할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는 취약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靑鞆』의 출간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기표현의 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15) 堀場清子, 『靑鞆の時代』, 岩波新書, 1988年, pp.53-54 참조.

16) 渡邊澄子, 『女々しい漱石と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1996年, pp.3-4 참조.

17) 입센의 1876년 희곡.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중산계급의 결혼에 숨겨져 있는 위선과 역할연기를 폭로하여, 여주인공 노래를 통해 '여자다움의 이상상'과 '성인 여성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인형의 집」은 많은 여성을 자각시키고, 노래의 고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리사터틀, 유혜련·호승희 옮김 『페미니즘사전』, 동문선, 1999년, p.137. p.219.

18) 엘렌케이는 大正期の 여성해방사상과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의 『戀愛と結婚』의 저서는 靑鞆의 지침이 되는 동시에 여성해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らいてう研究會編, 『靑鞆』人物事典』, 앞의 책 p.209 참조.

19) 이와 같은 소설로 「手紙の一つ」(神近市子), 「暗闘」(石野清子), 「執着」(加藤みどり)가 있다.

혁명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주시하고 싶다. 『靑鞆』의 문제제기 중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성인 자신을 「성으로서의 자신(性としての自己)」로 인식하고 「자기란 무엇인가(自己とは何か)」라고 묻는 것이다.²⁰⁾ 이는 여성이 자신의 성에 관심을 지니는 것조차도 터부시되어온 시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靑鞆』소설들은 『靑鞆』復刊(1983), 不二出版의 글에 의한다.

3-1. 여성들의 '억압된 성의식'

남근중심적 담론에서 요조숙녀는 성적으로 초연한 존재이며, 여성의 성은 오직 생식적인 목적에 이용될 때에 합법성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억압된 성'의 굴레를 지적한 작품으로 모리 시게(森しげ)의 「파란(波瀾)」(1909),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生血」(1911),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의 「오타카(お高)」(1911.10), 오지마 기쿠코(尾島(小寺)菊子)의 「밤기차(夜汽車)」(1911.12)를 들 수 있다.

모리 시게는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두 번째 부인이다. 오가이는 독일유학에서 귀국한 후, 男爵海軍中將의 장녀와 결혼했지만, 장남 출생 직후에 이혼하고 12년 후 시게코와 재혼했다. 모리 시게의 「파란」의 탄생은 흥미롭다. 오가이는 소설 「半日」(1909)에서 시어머니와 대립하는 자아가 강한 며느리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오가이집안의 일상생활을 부상시키는 작품으로, 이로 인해 시게가 약처라는 사실이 세상에 공포되었다. 오가이는 시게의 일상생활의 불만을 문학창작으로 해소할 것을 권한다. 「파란」은 「半日」발표 후 9개월 후의 작품이다.

「파란」의 작품의 세계는 도쿄(東京)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튿날, 당시 부임지인 고쿠라(小倉)에서 보낸 신혼 생활을 소개로 한다. 이미 40세에 접어든 남편의 아이를 낳아 아내로서의 자리매김을 굳히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몰래 피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굴욕감과 수치심에 격분한다. 이러한 아내에게 남편은 「너는 모처럼 포획한 중요한 미술품이기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존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아내(시게)의 인격을 무시한 권위적인 남편(오가이)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다. 남편의 노리개 감으로 여겨진 아내의 눈물어린 항변은 억압당한 섹슈얼리티의 일면을 보여준다.

『靑鞆』에 게재된 소설을 살펴보면, 「성으로서의 자신(性としての自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소설이 적지 않다. 당시 성욕은 남자들에게는 공인되어진 것으로, 여성의 성은 남자의 욕망에 응하는 <閨房>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을 여자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 창간호에 등장하는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生血」(1911)이다. 일본근대문학의 경우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 그려진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주로 표현되어왔다. 하지만 「生血」은 여성측에서 느낀 섬세한 성체험을 그린 점에서 근래 주목받고 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 후, 여주인공 유코(ゆう子)는 자신의 몸을 「어젯밤의 몸을 그대로 폭염에 드러내는 자신은, 햇볕에 썩어 짓물러 가는 부패된 물고기」로 생각한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가 더러워졌다고 자각하는 것은 여성을 지배하는 전통적 성규범에 의한다. 「양손과 양발이 자물쇠로 잠겨진 것처럼 조금도 몸이 자유로워지지 못한」채, 유코는 자신의 몸을 남자가 어디라도 좋으니까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소설의 마지막부분에 「박쥐가 남자 하카마를 입은 아가씨의 생피를 빨고 있다. 생피를 빨고 있다」라는 부분은 갈 곳 없는 내면을 표출하는 유코의 심정을 극단적으로 설명한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 남자조차 어느새 여자를 억압하는 지배자로 변모한다. 대등한

20)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靑鞆』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1999年, pp.12-20 참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할 연애가 성의 실체에 있어는 여성의 자아를 손상시키며 굴욕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유코는 남성 지배에 만족하며 체념하는 나약한 여성은 아니다. 미약하나마 비린내(남자 냄새:精液)가 나는 금붕어를 핀으로 찌르는 소극적 행위로 대항한다. 즉, 억압당한 여성의 성이 주체화된 시점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여성의 ‘억압당한 성은,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의 「오타카(お高)」(1911.10), 오지마 기쿠코(尾島(小寺)菊子)의 「밤기차(夜汽車)」(1911.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의 공통된 키워드는 남자에게 농락 당한다는 굴욕적 체험이다.

이와노 기요코는 결혼을 구실로 기만당하는 여성을 등장시킨 「오타카」(1911.10)를 쓴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마사오(雄生)의 누나는 알고 보니 그의 부인이었다. 오타카는 「커다란 돌이 자신의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지는 충격을 받으며, 「온 몸의 피가 눈물이 되어버린 듯」 통곡한다. 원망스러운 마사오에게 한마디 쓴소리도 못한 채 증오심으로 괴로울 뿐이다. 오지마 기쿠코의 「밤기차(夜汽車)」는 야간열차에 탄 여성이 옆 좌석 남자가 기대거나 손을 잡자 뜬눈으로 밤을 지새게된다는 줄거리이다. 날이 밝자 남자가 보내는 미소에, 그녀는 「상대를 굴욕하는 듯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대한다.

「과란」 「生血」 「오타카」 「밤기차」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억압당한 성’은 부당한 남성의 성적 지배를 지적한다. 여자라는 성규범에 자유롭지 못한 과도기 여성의 고충과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남성에게 강요받은 수동적·복종적인 관계에 길항하며, 동등해야 될 성적 평등이 여성작가의 비판적 시점으로 표현된다.

3-2. 여성들의 ‘해방된 성’의 의식

『靑鞆』이 「女流文芸誌」에서 「女性文芸思想誌」로의 성격변모를 선명히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제3권(1913.1)부터이다.²¹⁾ 이 무렵부터의 『靑鞆』소설은 국가, 부모, 연인 혹은 남편에게 관리되는 ‘육체와 성’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육체와 성’으로의 전환을 보이게 된다. 이리하여 『靑鞆』은 마치 여성들의 정조포기, 다수의 남성들과의 성체험의 고해소처럼 되었다.²²⁾ 그녀들은 자유연애를 감행하고 자신의 성을 결정하는 주체를 확립하여 賢母良妻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후기 『靑鞆』의 작품 중 가와다 요시(河田よし)의 「붉은 나무의 싹(紅き木の芽)」(1914.4)은 유럽 연극의 여주인공 노라(ノラ)와 바이바이(ヴィヴィ)에 관심을 지닌 요시에(芳江)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청년과 입을 맞추고는 성에 눈뜨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시마다(島田)는 거친 숨을 건디면서 요시에게 바짝 다가왔다. 다가선 왼손을 꼭 잡았다. 있는 힘껏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입술이 그 뺨에 닿았다. 그녀는 숨막히는 심장의 두근거림에 빈민했다. 다리는 힘없이 흔들렸다. 성을 자각한 육체는 미묘한 전율을 온몸에 보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무했으나, 단지 뜨거운 입술과 손에 닿은 남자의 힘이 생생하게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녀는 비로써 남자의 냄새를 알게 된 것이다. 이성의 힘을 안 것이다.

이전 요시에는 다른 남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마다에게서는 ‘남자의 냄새’와 ‘이성의 힘’을 느낀다. 작가는 소설이라는 허구에 의지해 賢母良妻와 상극되는 여성상을 이끌

21) 世田谷文學館編, 『靑鞆』と「女性芸術」, 世田谷文學館, 1996年, p.54 참조.

22) 서은혜, 「일본의 ‘신여성’운동과 『靑鞆』 - 초기산문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vol 13 no1, 2000년. p.212 참조.

어 내며, 기존의 남성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의 「편지 하나(手紙の一つ)」(1912.9)와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의 「미치코(道子)」(1911.11)는 자신의 논리와 판단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여성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그려져 있다.

가미치카 이치코의 「편지 하나」는 「B라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자가 H라는 여자에게 쓴 편지라는」부제목이 첨부되어있다. 高等専門學敎에 다니는 新進여학생인 「나」는 「사랑과 자유와 각성의 보호를 약속한」 고교생 K와 연애하며 성관계를 갖게 된다. 이후 K는 여성을 무시하는 인습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에게도 자신의 소유물인양 부당하게 취급한다. 결혼을 바라던 「나」의 당초 바람과는 달리, 그의 약속에는 결혼의 보증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에 분노를 느낀 「나」는 그에게 이별을 고하고 나서, 유복하고 다루기 수월한 B라는 남자를 선택한다. 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는 「남자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우리들이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의 만족스러운 발달을 이루기 위해, 兩性 사이에 응어리진 영원한 투쟁에 참여」할 결심을 한다. 「곰팡이 핀 貞節과 貞操」를 K에게 버린 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이 작품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양상은 ‘낭만적 사랑 - 성행위 - 결혼의 형태를 띠며 그녀의 행동에서 성은 결혼과의 연장선에 놓여서 그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수단이다. 이 작품을 다무라 도시코의 「生血」과 관련해 생각해보고 싶다. 한 여성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계기로 남성의 권력적 성적 지배 양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성관계 후, 태평하게 웃고있는 남자와는 대조적으로 여자는 억제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다. 이와 같은 남녀의 지배/피지배적 관계는 「편지 하나」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아라키 이쿠코의 「미치코」에서 나타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신여성 新しい女 라는 과감한 섹슈얼리티의 긍정은 남성작가들의 언설을 깨뜨린다.²³⁾ 이 작품은 한 소녀가 매춘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이 주된 스토리이다. 서양문화를 동경해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여관에 다니던 소녀가, 그의 흑심을 알아차린 후 반발하듯이 아사쿠사(淺草) 영세민 노동자들의 무리에 들어간다. 그 후 그녀에게는 금전과 쾌락을 쫓는 날이 이어진다. 기혼남 자본가 蕩兒와 동거하며 자유연애 클럽에 다니던 중 돈을 다 써버린 미치코는 할 수 없이 혐오하던 프랑스인을 찾아가 매춘을 시도한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미치코는 「아침가을 하늘은 드높게 펼쳐져, 누구든지 이 커다란 가슴에 앉아 줄 것 같다」라며 남성의 성적 지배에 초연함을 보인다. 다무라 도시코의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1915)에 나타난 여성의 성은 결혼과 일치하지 않는다. 니타(新田)는 집요하게 유코(優子)에게 결혼을 요구하지만, 유코는 이를 망설인다. 그녀가 생각하는 결혼은 여자에게 굴레만 씌우는 「여성의 굴욕」이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에 벗어나 언제까지나 자유로운 애인으로 지내길 원한다. 유코는 「애인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결혼은 「자신의 생애를 남자의 손에 의해 닫혀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혼녀의 불륜을 소재로 억압당한 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표출한 대표적 소설로 아라키 이쿠코의 「편지(手紙)」(1912.4)와 다무라 도시코의 「호우라쿠의 형벌(炮烙の刑)」(1913)을 들 수 있다. 아라키 이쿠코의 「편지」는 기혼녀가 젊은 애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로, 밀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관능적인 소설이다. 겉으로는 지극히 원만한 부부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인형처럼 여겨진 아내이길 거부한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하에서, 유부녀가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에게 정을 부고 불륜을 행한다는 것은 국가모독이라고까지 치부될 수 있었다. 기

23)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編, 『『青鞥』を読む』, 學藝書林、1998年, p.32.

혼녀의 불륜을 내세운 것은 억압된 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다무라 도시코의 「호우라쿠의 형벌」 역시 남편이 있으면서도 청년을 사랑하는 류코(龍子)라는 여주인공과 그 남편 케이지(慶次)와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의 소위 「不倫小説」이다. 「그 남자(청년 宏三)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죄악이라면 죽여주십시오」라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결코 죄악이 되지 않는다고 류코는 단언한다. 애인과의 밀회를 남편에게 목격당한 류코가 남편에게 붙잡혀 가면서 어떻게는 되겠지 하며 하늘을 바라보자, 「푸른 하늘은 행복한 듯 빛나게」보인다. 남편과 애인과의 사이에 흔들리던 아내의 고충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해방된 성’의식이 표출된 소설들에서는 성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여성이 그려져 있다. 이때의 ‘성’은 사랑의 굴레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긍정적인 시도인 것이다. 그녀들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거부하며 관능적 사랑을 피하지 않는다. 이 때 여성의 성욕은 남성적 기존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3. 여성들의 레즈비어니즘(lesbianism)

애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여성의 역사와 심리적 현실을 표면화시키기 위하여 <레즈비언 연속체(lesbian continuum)>의 구축을 제안했으며, 이는 여성-동일시와 여성 연대의 정치학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용어이다. 여기서 레즈비언의 실질적 정치적 의미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행동으로서의 금기, 강압적인 인생방식의 거부,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뜻한다.²⁴⁾

『靑鞆』의 경우 여성간의 동성에 즉 레즈비언을 다룬 작품이 다수 소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호리바 키요코(堀場清子)는 「제2차세계대전 후, 新憲法과 함께 民法이 개정되어 이에(家)제도가 파괴되어 남녀간의 연애가 解禁될 때까지, 여성간의 동성애는 현재에는 상상하기 힘든 의미와 보편성이 있었다」²⁵⁾라며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

『靑鞆』에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언설은 19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최초는 여성간의 동성 연애에 관한 것이었다. 히라즈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²⁶⁾에게 영향을 준 것은 엘렌케이의 『연애와 결혼(結婚と戀愛)』이었다. 『연애와 결혼』은 기독교 旧來의 성도덕을 비판해, 靈肉一致의 연애결혼과 자유이혼, 생식의 자유를 찬미하는 것으로 이에 동감한 라이쵸는 1913년 1월호부터 『靑鞆』에 번역 연재를 개시하였다.

『靑鞆』창간 직후 男裝을 즐겨한 히라즈카 라이쵸는 「少年愛」에 비유하며 연하의 오타케 가즈에, 고키치(尾竹一枝, 紅吉)를 사랑한 사실은 동성애 관계로 유명하다. 라이쵸는 하베록 엘리스의 『성의 심리연구(性の心理の研究)』의 1장 「여성간의 동성애(女性間の同性戀愛)」를 『靑鞆』에 실고, 그 서문에서 스스로 “나와 가까운 과거에 만났던 한 부인 - 거의 선천적인 성적 전도자로 여겨지는 한 부인에 의해 나는 이 문제에 특별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부인의 사랑의 대상으로 1년을 지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²⁷⁾ 두 사람의 동성애 체험은 「치가사키로, 치가사키로(茅ヶ崎へ、

24) 노승희, 「젠더와 성 정치」,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년, p.409.

25) 堀場清子, 『靑鞆の時代』, 앞의 책 p.108.

26) 오고시 아이코(大越愛子)는 라이쵸의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의 詩에 性的願望이 투영되어있다고 지적한다. 라이쵸는 兩性具有的인 사랑과 성의 소유자였다. 여성을 사랑하며 또 그 열정을 받으며, 이윽고 女性優位の 對關係 확립을 이루었다. 즉, 성적인 주체성을 지닌 여성섹슈얼리티의 다원적 발현이지만, 그것을 의식화되지 못하고 그녀의 임신, 출산체험에 의해 결국 무산되었다.

山下明子編, 『日本のセクシュアリティ』, 法藏館 1991年, p.167 참조

27) 라이쵸는 고키치와의 「戀愛」를 성의학이 「性的倒錯者」, 「同性戀愛」(性的倒錯)라고 부르는 “병”으로 위치짓

茅ヶ崎へ)」(1912.8)에서 라이쵸가 코키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고키치는 결핵을 선고받고 치카사키(茅ヶ崎)의 요양소에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큰사랑을 받고 싶다」는 편지를 라이쵸에게 보낸다. 편지를 받아본 라이쵸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이 감정을 소년의 가슴에 던져두고 싶다. 힘껏 포옹하고, 피가 나올 정도로 키스하고 싶다」며 그대로 고키치의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라이쵸는 얼마 못가 5살 연하의 오키무라 히로시(奥村博)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은 봉건적 결혼제도에 반대해 법률에 의하지 않는 자유로운 결혼(共同生活)을 한다. 고키치도 일시적으로 라이쵸의 변심에 동요했지만, 도미모토 겐키치(富本憲吉)와 결혼에 이른다. 여성간의 동성연애는 자립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작가간의 동성애적 관계는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와 나가누마 치에코(長沼智恵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밖에 1910년에서 30년대에 걸쳐 선진적 여성작가로 불려지는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와 이토 노에(伊藤野枝), 가와이치 후사에(川市房枝)와 가네코 시게리(金子しげり), 유아사 요시코(湯淺芳子)와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등은 동성의 사랑을 영위했지만 이 들 중 어느 한쪽이 이성애로 돌변하는 바람에 이들 사이는 종국을 맞게된다.

라이쵸는 明治民法이 만들어 놓은 性を 속박하는 쇠사슬 - 부모가 정하는 결혼, 임신의 의무, 출산, 육아, 남편의 방종에 견디며 이혼을 못하는 현실 - 을 「여성의 한평생에 걸친 권력복종의 관계」 「세상의 부인들에게(世の婦人達に)」(1913.4)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성간의 동성애는 性を 속박하는 권력복종의 쇠사슬은 내포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라이쵸와 고키치의 애정행위는 여성의 연대의식의 표상이며, 복종의 쇠사슬을 단절시키려는 행위라고도 말 할 수 있다.²⁸⁾

『靑鞆』과 그 주변에 흐르고 있던 자매애적 흐름은 소설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간자키 쓰네(神崎恒)의 「雜木林」(1913.1), 스가와라 하츠(菅原初)의 「10일의 친구(旬日の友)」(1915.3),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여자친구들(女友達)」(1915.3) 등에서는 여성 사이의 친밀한 우정과 에로틱한 감정을 엿 볼 수 있다.²⁹⁾ 남성의 응시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부끄러워하고 성욕을 음탕하고 불결한 것으로 교육받았는데, 이 세 소설의 여 주인공들은 그러한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소녀들은 프로이트식 성 담론의 공식을 거부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다.

간자키 쓰네의 「雜木林」의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여학생 「나」는 두 사람의 동성애에게 호감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등장인물들이 어린 여학생이고, 여학교·기숙사라는 밀폐된 여성만의 공간이 무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주인공 「나」는 여학교에서 유별나게 異彩를 발하는 가오루(薫)에게 「무언가 강한 힘으로 이끌리게 된다. 한편 「나」는 방학인데도 가마쿠라(鎌倉)로 떠난 히데코(英子)를 기다리며 기숙사를 떠나지 못 한다.

기숙사의 무미건조한 생활에 진력 난 나는, 히데코의 따스함을 구하는 동시에, 나도 모르게 가오루씨의 강력한 힘에 끌리게 되었다. 나는 가오루라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도저히 헤어

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정상적인 것으로 差異化하려 했다.

中山和子・江種満子・藤森 清編, 『ジェンダーの日本近代文學』, 翰林書房, 1998年, p.113.

28) 또한 와타나베 스미코(渡邊澄子)는 여성을 밀실에 밀어 넣어 비갈세계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女德」이라는 정보만 흘러 마인드 콘트롤하려던 당시, 여성들이 놓여진 세계로부터 탈출한 라이쵸와 고키치의 언행을 <레즈비언 페미니즘>에 의한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渡邊澄子, 『日本近代女性文學論』, 世界思想社, 1998年, p.6.

29)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編, 『『靑鞆』を読む』, 앞의 책 p.270.

지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고 말았다. 그것이 나에게는 기쁘면서도 어쩐지 기분 나쁜 여러 감정을 생기게 했다.

「나」는 정신적으로는 히데코를 그리워하면서도 육체적으로 가오루에게 강하게 이끌린다. 또한, 스가와라 하츠의 「10일간의 친구」(1915.3)는 「나」가 주인공이지만, 「나의 소중한 친구」인 P가 K라는 여성에 관해 「나」에게 고백하는 이중화자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한 묘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에로스적 표현이 많다. 「나=P」는 남성적인 「K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단 한번만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동성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밤을 지낸 후 K는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 그 후 나는 10일간의 친구를 그리워하게 된다

“발버둥 칠 수 있는 한 발버둥 쳐라, 변민할 수 있는 한, 변민할 수 있는 한”
이런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나는 완전히 K의 팔에 안겨 버렸습니다. 나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K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또 힘껏 나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진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이 조금 정신이 든 나는 “조금 알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K는 날카롭게,
“모르겠습니까? - 이 밤은 나의 모든 것을, 모두다, 당신께 드립니다.”(중략)
“이상하지 않지만 K의 입술에 닿자 나의 입술은 마치 이성의 그것에 닿은 듯 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K의 팔에 안긴 채 이 기묘한 운명대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있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나」는 현재 여학교 시절 동성 애인이었던 K를 떠올리며 그 모습을 「感傷」으로 간직한다. 「나」는 「진심인가, 유희인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진실’이라는 사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떼떽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같은 호의 가와다 요시의 「여자친구들」은 세 명의 여성사이의 동정과 질투를 그리면서, 무의식적인 동성애적 감정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이성적 연애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미츠코(光子)와 그것을 지켜보던 스미코(澄子)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미츠코는 스미코를 방문한 다미코(民子)라는 소녀에게 거의 질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미츠코를 독점하고자하는 다미코에게 거절당하자 「스미코 씨에게는 다미코 씨가 있으면 된다. 나 따위는 벌써 생각도 해주시지 않아..... 나는 정말 혼자 떨어져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라며 하소연한다.

대표적 레즈비언 소설로 꼽을 수 있는 이 세 소설은 남성의 피보호자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성적 주체자임을 표명한다. 즉 여성들의 친밀한 우정과 에로틱한 감정, 자기긍정, 여성의 우정과 동성애를 이성간의 삼각관계로, 여성간의 진정한 우정을 동성의 사랑으로 승격시킨다³⁰⁾. 여성의 자아를 가로막는 남성중심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자매애 또는 레즈비언리즘에 가까운 소설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남녀관계가 상하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남성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은 여성들의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여성들의 자매애(シスタフッド)를 단적으로

30)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작품의 애정표현의 위상은 한쌍의 남녀관계가 대부분이지만, 두 남성과 한 여성의 연애 이야기가 주축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간의 관계가 시사되는 경우도 있다. 「あきらめ」(1910)를 필두로 「悪寒」(1912) 「春の晩」(1914) 등에서 농밀한 섹슈얼리티 표현에 충만한 레즈비언적 소설이 있다.

설명해주는 요시아 노부코(吉屋信子)의 말을 빌려 이해를 돕고 싶다. 여성의 자매애는 남성의 下位, 劣位, 被害者가 아닌,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희생시키지 않는 관계」³¹⁾라는 것을 …….

4. 결 론

江戸 중기에서 明治초기에 걸쳐 여성교육의 근간이 된 三從七去의 「女大學」과 이를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賢母良妻교육에 의해 1910년대 일본 여성들의 아이덴티티는 만들어졌다. 또한 근대국가로 발돋움한 일본 明治정부는 러일전쟁의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더불어, 여성의 「국민화」를 꾀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자립적인 여성의 출현을 꺼리며, 성의 자기결정권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해 음란의 낙인을 씌우며 말살하려했다.

이와 같은 봉건적 시대상황과는 달리, 1911년대 『靑鞆』소설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 양상은 변모하는 여성의 가치관을 투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도기적·수동적 여성의 성의식이 투영된 「억압된 성」과 자유로운 「해방된 성」 그리고, 여성들간의 연대감을 중요시한 「레즈비어니즘」이다.

여성들의 「억압된 성」의식은 모리시게(森しげ)의 「파란(波瀾)」,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生血」,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의 「오타카(お高)」, 오지마 기쿠코(尾島(小寺)菊子)의 「밤기차(夜汽車)」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리 시게의 「파란」에서는 남편의 피임사실에 분노를 느낀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는 억압된 섹슈얼리티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무라 도시코의 「生血」은 성관계 이후 여성이 체험한 자아 손상과 모멸감을 그리고 있는데, 여주인공은 금봉어를 찌르는 미약한 행위로 반항한다. 이와노 기요코의 「오타카」, 오지마 기쿠코의 「밤기차」에서도 남성의 성적 지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녀들은 통곡·분노·망설임이라는 심적 고통은 드러내는데 이는 성규범에 자유롭지 못한 과도기 여성의 수동적 대항이라고 할 수 있다.

『靑鞆』은 제 3권부터 <女流文芸誌>에서 <女性文芸思想誌>로 성격변모를 선명히 표방한다. 이 무렵부터의 『靑鞆』소설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지닌다. 가와다 요시(河田よし)의 「붉은 나무의 싹(紅き木の芽)」,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의 「편지 하나(手紙一つ)」,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의 「미치코(道子)」,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호우라쿠의 형벌(炮烙の刑)」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성적지배를 거부하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성은 사랑의 굴레에 예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긍정적인 시도가 되었다.

『靑鞆』창간 직후 히라쓰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와 오타케 가즈에, 고키치(尾竹一(紅吉))는 동성애관계로 유명하였다. 이성애가 정당화된 사회체제 하에서 선진적 여성작가들의 동성애 관계는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여성의 연대감을 구축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靑鞆』소설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레즈비어니즘과 동성애관계를 그린 소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간자키 쓰네(神崎恒)의 「雜木林」, 스가와라 하쓰(菅原初)의 「10동안의 친구(旬日の友)」, 가와다 요시(河田よし)의 「여자친구들(女友達)」등에서는 여성 사이의 친밀한 우정과 에로틱한 감정을 엿 볼 수 있다. 1910년대 『靑鞆』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는 「억압된 성」의 항변에서 「해방된 성」과 「레즈비어니즘」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사랑과 성이 국가와 남성의 권리 하에 놓여져 신성화되던 시대에, 靑鞆과 그 주변작가들은 남성

31) 「續 再發見 近代の女性作家たち」, 東京新聞(夕), 2002년 1월 21일.

과 사회로부터 강요받았던 복종, 인내, 헌신 등의 여성의 덕목을 깨뜨린다. 사랑과 성의 자유를 지향하던 그녀들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상대가 애인·남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즉, 이리가라이가 지적한 여성성의 자립문제³²⁾를 1910년대 여성작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성에 대한 열시가 심화되던 시대에 靑鞵의 여성들은 성과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추구해 현대에도 이어지는 논리적 틀을 제출한 것이다.



【參考文獻】

- 로즈마리 통, 이소영 옮김(2000)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p.391
- 리사터틀, 유혜련· 호승희 옮김(1999) 『페미니즘사전』, 동문선, p.137, 219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통합1호(1999) 『여/성이론』, 여이연, p.214
- 한국영미페미니즘학회(2000)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p.409
- 한국여성문학학회(2000) 『여성문학연구』4호, 태학사, p.157
- 한국성폭력상담소편(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p.24

32) 이리가라이가 대담히 주장한 것은 여성의 성적자립의 문제이다. 그녀는 남근 중심 체제하에서 굳게 믿어왔던 여성의 성적존 신화를 굴복하고, 여성이야말로 성적자립이 가능한 존재이고 역으로 남성이야말로 성적 의존 존재임에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山下明子編, 『日本のセクシュアリティ』, 앞의 책, p150참조.

- 김형주(1999)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앙영어영문학』 제4호, p.174
- 이봉지(1999) 「엘렌식수와 여성적글쓰기」, 『세계의 문학』 겨울, p.252
- 서은혜(2000) 「일본의 '신여성'운동과 『靑鞆』 - 초기산문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vol 13 no1, p.212
- 日本近代文學大系 第17卷(1989) 『与謝野晶子 若山牧水 窪田空穂集』, 角川書店, p.51
- 大越愛子(1996) 『フェミニズム入門』, ちくま新書, p.176
-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編(1998) 『『靑鞆』を読む』, 學藝書林, p.32 p.270
- 『靑鞆』復刊(1983), 不二出版
- 世田谷文學館編(1996) 『『靑鞆』と「女性芸術」』, 世田谷文學館 p.54
- 續 再發見 近代の女性作家たち(2002.1.12), 東京新聞 夕
- 中山和子・江種満子・藤森・清編(1998) 『ジェンダーの日本近代文學』, 翰林書房, p.113
- 福地重孝(1963) 『近代日本女性史』, 雪華社, p.49
- 福田清人編(1965) 『樋口一葉 人と作品』, 清水書院, p.196
- 堀場清子(1988) 『靑鞆の時代』, 岩波新書, pp.53-54 참조 p.108
- 山下明子編(1991) 『日本的セクシュアリティ』, 法藏館, p.150 참조
- 米田佐代子(2002) 『平塚らいてう 近代日本のデモクラシーとジェンダー』, 吉川弘文館 p.85
- らいてう 研究會編(2001) 『『靑鞆』人物事典』, 大修館書店, p.4 p.203 p.223
- 渡邊澄子(1998) 『与謝野晶子』, 新典社, p.79
- 渡邊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學論』, 世界思想社, p.6
- 渡邊澄子(1996) 『女々しい漱石と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pp.3-4 참조
- 渡邊澄子編(2000) 『女性文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p.12-19

要 旨

北村透谷は「處女の純潔を論ず」(1893)で、高尚な戀愛は「無染無汚の純潔」を源としていて、純潔のない戀愛は「肉愛」に過ぎないと言う。女性の価値を性的純潔性に求めている透谷の戀愛觀を述べている。一方、自然主義文學の代表とされる田山花袋の「蒲団」では、男・女の關係は男の「肉愛」「性愛」の觀點からのみ描かれている。これは教育勅語や明治民法に象徴されるような天皇制絶対主義下での男尊女卑が加速された時代背景にも影響を受けている。

1911年に誕生した「靑鞆」は「女流文學の發達を計り、各自天賦の特性發達せしめ、他日女流の天才を生まむ事」を目的とした。「靑鞆」の女性たちは、女性である自分の身體を「性としての自己」と認識し、その「自己とは何か」を問いかけている。

本稿では1910年代に女性小説におけるセクシュアリティの様相を三つに分類してみた。女性の抑壓された性には、女性という性規範のもと決して自由になれなかった過渡期での女性の苦痛と怒りが表現されている。また、解放された性は男性に支配されることのない女性の出現や不倫という自己主張にまで至る。そして、女性の連帯感を重視したシスターフッド・レズビアンイズムまで登場している。

女性のセクシュアリティは家族を作る生殖のためであると規定され、性交は社会的に制度化され認知されてきたことについて、彼女たちは絶えず疑問を提示している。家庭内に封じ込められる<良妻賢母>ではなく、「性としての自己決定」を求めることによって、近代自我をもつ<個>としての自分を求め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セクシュアリティ・1910年代・青鞥・抑壓された性・開放された性・
レズビアンイズム・シスターフッド

투 고 : 2004. 2. 28
1차 심사 : 2004. 3. 13
2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305-330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74번지 열매마을3단지 대우APT 306동 803호
電 話 : 042 -477 -5526
E-mail : jisook26@hanafos.com

к с і